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⑦

## 역사상의 佛陀

붓다의 전기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붓다의 생애에 대한 자료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해 내려온 게 아니라 문헌이나 전설의 형태로 알려져 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개인이 자의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원래 사실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인도작가들의 과장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없는 것을 조작해 낸 것 같지는 않다. 불전(佛傳)에 등장하는 정황묘사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실제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싯타라 태자가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것이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대한 몇몇 과장된 묘사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 특히 기록된 전법 행선지와 오늘의 실제 지리(성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잠깐 붓다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는 인류사에 성인들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공자(孔子), 노자(老子), 피타고라스 그리고 헤라클리토스 등이 붓다와 동시대인들이다.

서구인의 입장에서 붓다의 일생과 예수의 일생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예수의 전도생활은 격정적이고도 극적인 사건으로 채워진 반면 붓다의 전도생활은 인류의 스승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도둑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부처님의 생애는 현대에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의미를 새로이 부여받고 있다. 사진 위는 최초설법지 녹야원의 전경. 아래는 콜비니의 한국철학사 기공식때에 모인 네덜의 불자들.

# 나의 수행일기

한용수 <수훈상>



저는 1975년 6월 2일 함경북도 연사군 신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20년을 살다 남한에 귀순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제가 불교를 안다고 하면 무엇을 알겠고, 또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불교를 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1995년 6월 12일 인민군 1군단 13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군 7사단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지역으로 월남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저로서는 종교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종교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동과 등불이 되어주고 의지해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교회에 더 많이 갔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책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형편이 잘 풀릴 때쯤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타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리라."

이 말이 제가 불교를 믿게 된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20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를 받고 김정일사상으로 교육을 받아 온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또 인자한 스님 덕분에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가까이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일들이 잘 풀려나고 좋은 분들도

## "불교는 확실히 기독교와 다르구나" 지혜의 말씀 김일성사상 세탁 "북녘에 전하고파"

많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그런지 교회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한번 절에 나가 보았습니다. 절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두번 다니게 됐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절에 나오라, 부처님을 믿어라 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다면 종교는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대로 가라, 불교에 오든 기독교에 가든 네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교는 확실히 기독교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모습에서 스님들의 성실함과 깨끗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책을 본 후였습니다. 그 책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에 옮겨봅니다.

"우리나라도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방아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영경을 참아 이겨내고,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이복에 계시는 저의 부모형제들과 친구를 또 크게는 북한의 국민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부처님 곁에 있게 해주시

고 통일의 그날 부모형제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또 제가 사회정착을 잘 하고 북한국민들도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불쌍한 중생들을 깨우쳐 주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서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살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수계를 받았습니니다. 광명선원 원장이신 초격스님께서 저에게 법경(法鏡)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마침 며칠 전이 셤이었습니다. 초격스님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하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연화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995년은 제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해였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를 따듯이 맞아주시고 부처님전에 세우주신 스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스님의 포교봉사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 설인사를 드립니다. 용수 올림"

번역 :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쉽없는 중생교화 '인류의 스승'

자는 어떠한 상징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스승을 찾아가 배웠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단순히 찬양하기만을 위한다면 스승을 찾았다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테니 말이다.

붓다의 발병(發病)과 죽음에 관한 대목도 거의 사실적인 묘사에 가깝다. 붓다의 병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붓다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원형이며 그 가르침은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된다"

## 45년간 전법행선지 인도지리와 일치 서구철학자 '지고한 정신세계'에 감동

있는 음식도 누군가가 꾸며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실적인 기록인 것으로 보여진다.

출가하기 전 태자로서의 싯타라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묘사는, 출가 후 겪게 되는 고통스런 수행과 극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소 과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불교학자 올덴버거(Oldenberger)는 '숫다다'란 이름이 '순수한 쌀' 혹은 '순수한 음식을 가진 자'의 뜻을 가진 정반왕(淨飯王)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그가 왕이래기 보다는 넓은 쌀 경작지를 소유한 부유한 대지주였다고 생각했다.

정각을 이루기 전 붓다의 수행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나 45년간의 전법행선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기록에

교리는 태자가 출가하여 성도(成道)한 뒤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강렬하다. 그러나 관찰할 수 없는 사실은 불교는 개인의 유일한 인격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같이 드라마틱한 인물상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자체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두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중 세번째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붓다는 '너희는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라고 가르쳤다. 타력 신앙과 자력 신앙의 대조가 뚜렷하다.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는 말하기를 개인으로서 고타마의 존재는 불자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대

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붓다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이땅에 나타나 원형(原型)이기 때문에 붓다의 개성적인 모습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일회적(一回的)이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붓다의 삶과 가르침은 역사적인 주기 때마다 반복되며 고타마는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의 한 사슬의 역할을 다하였다.

출가수행의 전통은 고타마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인에게 적용되며 오늘날에도 장년기를 넘어서 많은 인도인들은 가족과 재산을 뒤로하고 수행사문의 길을 걷는다.

에드워드 콘즈는 말한다. "서구의 역

사학자의 눈에는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만 사실이고 신비로운 정신세계는 모두 픽션으로 보일지 모르나 불자의 입장에서 붓다의 지고한 정신세계가 일차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지 붓다의 개인사(個人史)는 찬란한 정신적 보석을 감싸는 누더기처럼 부차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의 불교사(佛敎史) 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인도인들도 역사를 경시한다. 연대기(年代記)적인 의식이 희박한 것이다. 11세기 초반의 아랍학자였던 알베루니(Alberuni)는 인도에서 1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도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나 왕위 계승의 계보(系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질문을 할라치면 어떤 대답을 만들어 답할지 짐작할 수가 없다"

사실 인도인들엔 어느 역사적인 날짜나 장소 혹은 개인의 이름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붓다의 탄생지로 알려진 카필라바스투(城)는 산카교 창시자 카필라가 불교에 미친 커다란 영향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인도철학자들은 종종 여러시대의 철학학파들을 통시대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인도철학사가 확립된 것은 막스 밀러(Max Müller)나 도이센(Deussen) 같은 유럽학자들에 의해서였다.

#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 백은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신국판 ① ②권/각권 5,000원 60권 권평중입니다.

울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유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햇불이 되었으니.....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